



KC뉴스레터  
QR코드를 찍어주세요

# KC Newsletter vol.27



## Networks

[KC그린홀딩스] KRX EXPO 2011 참가

[KC코트렐] POSCO 자율검정 인증업체

[KC호남환경] 회사소개

[KC환경서비스] 품질경영시스템 도입 달성



## Custom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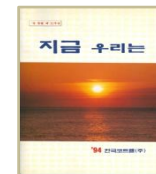
[발전민수소식] 제1회 동서발전 연구개발 경진대회 개최 -KC코트렐 기술연구소와 연구개발한 "선택적 촉매 재생공정" 최우수상 수상



## Economic Trend

11월 달러/원, 1,080원 ~ 1,140원, 엔/원, 1,350원 ~ 1,460원, 유로/원 1,500원 ~ 1,600원

[원자재시장]



## KC Edition 1

[그 때 그 시절 사보연재] 94' 지금, 우리는



## KC Edition 2

[안성유리공업] 안성산악회

## CONTENTS

## KC네트워크 소식

## 고객사 등향

## 경제 등향

## 기획특집 1

## 기획특집 2

## [KC그린홀딩스] KRX EXPO 2011 참가

KC그린홀딩스(주)가 10월 13일(목)부터 15일(토)까지 COEX 컨퍼런스센터 3층 HALL C에서 열린 "KRX EXPO 2011"에 참가하였습니다. 160여 개 상장기업들이 제품 시연을 비롯한 유용한 기업 정보를 교환한 가운데, KC그린홀딩스(주)는 많은 애널리스트와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전시회 첫날인 13일과 14일, 양일에 걸쳐 IR 담당자인 재경팀 장석운 선임은 기관투자자와의 One-on-One Meeting을 통해 회사를 홍보하였으며, 지원팀 황상훈 대리는 부스에서 애널리스트(13~14일)와 일반 투자자들(15일)을 상대로 KC그린홀딩스(주)의 경쟁력을 알렸습니다. 이 외에도 환경산업의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한 KC그린홀딩스(주)의 모습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금번 "KRX EXPO 2011"는 대기환경플랜트 전문업체에서 녹색환경 전문 지주회사로 전환한 KC그린홀딩스(주)를 대외적으로 알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앞으로 더 많은 기회를 마련하여 회사의 노력과 성과를 알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다짐을 보였습니다.



▶ 2005년 처음 개막된 KRX EXPO는 한국거래소가 주최하고, (사)한국IR서비스가 주관하는 행사로, 명실상부 국내 최대의 IR엑스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3,000여명의 국내외 투자자와 30,000여명의 일반투자자가 참여한 금년 EXPO에 KC그린홀딩스(주)가 처음 참여하여 그 명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CONTENTS

## KC네트워크 소식

## 고객사 등향

## 경제 등향

## 기획특집 1

## 기획특집 2

## [KC코트렐] 포스코 검정자율관리 인증업체 3년 연속 선정

지난 10월 24일, KC코트렐이 2011년 포스코 검정 자율관리 인증업체로 연속3회 선정 되었습니다.

포스코는 400여 개의 설비 공급사 중 검정 자율관리 인증업체 7개사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KC코트렐은 '2011년도 검정 자율관리 인증업체'로 선정되어 인증서를 수여 받았습니다. 인증품목은 집진기입니다.

검정 자율관리 인증업체란 설비공급 시 검정을 면제 받는 우수 공급사를 의미합니다. 이는 포스코에서 선정하는 중소 우수 제작사로 인증 후 1년 간 포스코에 설비공급 시 인증 받은 품목에 대해 검사를 면제받게 되고 자율적인 품질 및 제작관리를 통해 포스코에 설비를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검정 자율관리 인증 공급기간은 11.10.1 ~ 12.09.30 까지 1년간입니다.

포스코는 검정 자율관리 인증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400여 개에 달하는 설비 공급사 중 검정 지적률이 0.5% 이하인 우수 공급사를 인증후부를 현장실사 팀이 설비제작공장을 직접 방문하고 품질관리실태를 평가했다고 합니다. KC코트렐은 위와 같은 조건에 충족되어 작년에 이어 3년째 검정 자율관리 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 ▷ POSCO 검정 자율관리 공급사 인증서

▶ 포스코는 2009년 검정 자율관리 인증제도를 도입했으며, 이를 통해 공급사에 자율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검사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검사인원 등을 절약해 왔다. 윤리규범 위반이 나중 대결함 이상의 품질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인증이 취소되며, 인증기간 내 취소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회사는 자동으로 인증기간이 연장된다.

KC코트렐 포항사무소 제철사업부 김규백 사원  
(gyuback@kc-cottrell.com)

## CONTENTS

##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등향

경제 등향

기획특집 1

기획특집 2

## [KC호남환경] 신규 네트워크사 편입

## KC 가족 분들께 인사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

먼저 KC그린홀딩스와 함께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KC호남환경㈜는 1984년에 설립하여 지난2011년 8월1일부로 KC그린홀딩스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전북 전주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폐기물중간처리업(소각62.4t/day) 및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300t/h)을 보유하고 있고 20년 이상 축적된 노하우와 확보된 양질의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대표이사 고재영사장님, 주재임원 채수백 상무이사 그리고 관리팀, 영업(소각,건폐)팀, 소각운영팀, 건폐운영팀, 공무팀 총 5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객은 왕 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고객은 항상 옳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최고의 품질, 최선의 서비스로 KC호남환경㈜을 최고의 기업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 ◎회사연혁

- 1984.2 주식회사 호남환경 설립
- 1984.6 산업폐기물 종합처리업 허가
- 1994.5 사업장(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  
사업장(일반)폐기물 중간(소각) 처리업 허가
- 1996.5 사업장(지정)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
- 1996.6 사업장(지정)폐기물 중간(소각)처리업 허가
- 2005.4 소각시설 신설(2.6톤/시간)
- 2007.6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파쇄,분쇄) 허가
- 2011.8 케이씨호남환경 주식회사로 법인변경  
대표이사 고재영 취임



## CONTENTS

##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등향

경제 등향

기획특집 1

기획특집 2

## [KC환경서비스] 품질경영시스템 도입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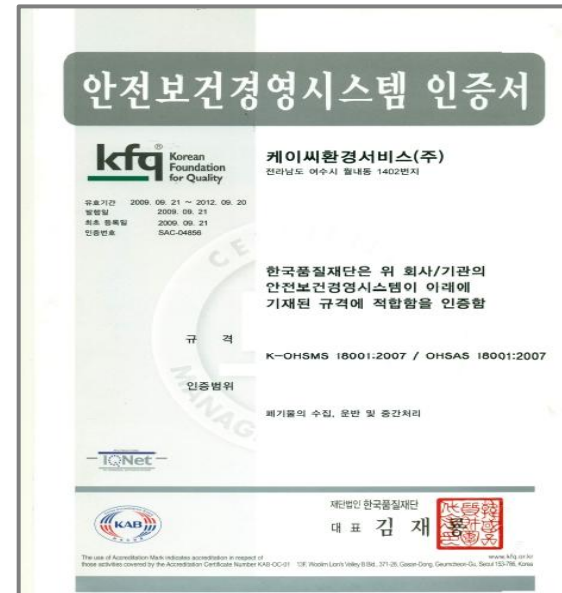
KC환경서비스(주) 통합인증심사가 2011년 7월 25일~29일 진행되었습니다. 기존에 유지하던 환경경영시스템의 갱신심사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사후심사를 진행하면서, 신규로 품질인증심사의 최초심사를 신청하여 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초심사는 1,2단계로 나누어 문서심사를 우선 실시하고 이후 현장심사를 진행하였으며 한국품질재단의 심사원 두 분이 오셔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각 팀별 담당자들과 컨설팅 업체와 함께 준비한 심사자료지만 심사를 받다 보니 부족한 부분이 많았으나, 심사 도중 심사원 분들에게 시스템에 대한 의문점 및 당사에 부족한 자료를 요청하며 적극적으로 도입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덕분에인지 경부적합 2건 및 몇가지 개선을 위한 제안으로 2011년 8월 29일자로 시스템의 인증을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경영시스템인 품질경영시스템의 도입을 준비하면서 소각시설인 당사의 실정에 맞는 시스템인지 의문도 생기고 고민도 많이 하였지만, 일단은 도입을 하고 회사원 각자가 시스템을 충분히 숙지하고 노력하면 못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추진한 것이 작은 결실을 맺게 되어 마음 한 구석엔 뿌듯한 마음도 생깁니다.

하지만 시스템의 도입은 인증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추진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져 시스템의 취지에 맞는 성과가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케이씨환경서비스 직원들은 기존에 유지하던 환경경영시스템, 안전보건경영시스템과 더불어 새로운 시스템인 품질경영시스템의 성과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사원이 하나로 힘을 모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시스템의 심사준비에 각자의 바쁜 업무에도 노력해주신 각 팀별 시스템 담당자 분들과 추진에 협조해주신 모든 직원들께 감사에 마음을 전합니다.



## CONTENTS

## KC네트워크 소식

## 고객 동향

## 경제 동향

## 기획특집 1

## 기획특집 2

## [발전민주 소식]

## 제1회 동서발전 연구개발 경진대회 개최

## KC코트렐 기술연구소와 연구개발한 “선택적 촉매 재생공정” 최우수상 수상

동서발전은 13일 본사 무궁화홀에서 창사 10주년을 맞아 「Global Top 10 Energy Company」 달성을 위해 효율적인 연구개발 추진으로 안정적 설비운영과 경영수익에 이바지한 기술을 선정, 포상함으로써 개발기술의 정보공유와 성과중심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1차 연구개발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사업총괄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안정적인 설비운영과 회사 경영 수익에 기여한 참가자들에 대한 노고를 치하함과 동시에 무한경쟁 시대에서 동서발전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설비의 외산 의존도를 탈피하여 설비를 안정적으로 운전하고 유지, 정비하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타사의 벤치마킹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중심의 연구개발 수행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날 경진대회에서는 당진본부 1발전소 보일러팀과 KC코트렐 기술연구소에서 수행한 “선택적 촉매 재생 공정: 기술개발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얻었으며, 우수상은 울산 기력 6호기에 적용한 “Hybrid 탈질 시스템 개발” 그리고 장려상은 동서발전 기술지원팀, 장진 1발전소 계측제어팀에서 각각 차지하였다.

향후 동서발전은 기술중심회사로의 선도역할 수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대학, 산업체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 경진대회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 CONTENTS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1

기획특집 2

## [환율시장]

10월 달러/원, 1,140원 ~ 1,230원, 엔/원, 1,460원~1,600원, 유로/원 1,540원~1,630원



&lt;출처:외환은행 홈페이지&gt; 원/달러 환율 추이 (최근6개월)

11월 달러/원 환율은 월 초 유로존 위기 해결 기대를 키우는 굵직한 이벤트를 소화하며 추가하락 시도에 나서겠으나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의 랠리를 연장시킬 이슈 부재와 악화되지는 않았지만 높아진 신용리스크, 달러/원 자체의 레벨 부담, 외환당국의 개입 가능성 등이 하락을 제한하며 1,100원 내외의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 여건은 월 초 G20 정상회의, EU 재무장관회의에 대한 이벤트 기대로 위험자산선호 강화, 미달러 약세가 더 연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흥국들의 리플레이션 동향, 유럽은행들의 자본 확충 과정에서의 유로화 수요 등이 미달러에 하락 압력을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나쁘지 않은 미국 경제가 10월 말 강화된 QE3 기대를 낮춰줄 것으로 보이며, 중국경제에 대한 경계 등은 미달러의 하락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국내 여건은 경상부문은 흑자 기조를 유지하며 하락 우호적인 여건을 형성할 것으로 보이며, 10월 네고가 꾸준히 출회된 만큼 이월 네고 부담은 적다.

자본부문은 주식, 채권 자금의 유입이 기대되나 글로벌 금융시장과 경제에 대한 여전한 불확실성과 레벨이 낮아진 달러/원 환율 등을 고려할 때 유입강도는 미약할 듯 보여진다. 한편 9월 외국인의 Hedge(선물환 매수) 포지션의 청산 여부도 주목되는데 달러/원 환율의 변동성 확대가 당분간 이어진다고 고려할 때 이 포지션을 성급하게 청산하며 환율의 급락을 이끌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진다. CDS 프리미엄은 9월 급등 이전 수준으로 내려왔으며 스왑베 이시스도 유로존 재정 위기 부각에 따른 확대분을 대부분 되돌림 해 신용여건상 환율 급등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볼 수 있겠다.

현 상황은 올 상반기와 비슷하다. 하지만 하반기 급락 경험으로 리스크 관리가 더욱 철저해짐에 따라 추가적인 위험자산선호와 금융시장 랠리는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준의 최후의 수단으로 볼 수 있는 QE3와 중국의 완화로의 통화정책 선회 가능성은 반전을 만들어 줄 수 있겠으나 단기적으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11월 달러/원 환율은 하락 시도 속에 9월 초 발생한 1,080원~1,090원의 갭 메우기 시도에 나설 것으로 보이나 이후 하락 전환보다는 반등 시도 예상된다. 하지만 유로존 재정 리스크 부각에 따른 오버슈팅 국면이 일단락 됐다는 점에서 상승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며 120주 이평선(1,143원) 부근에서의 저항이 예상된다.

## &lt;여기서 잠깐!!&gt;

10월 환율은 EU 정상회의 합의에 따른 유로존 재정 우려 약화와 한-중-일 통화스와프 규모확대 합의, 업체들의 꾸준한 네고 물량 출회, 외국인 채권자금의 유입 등으로 9월 급등의 상당부분을 되돌림 하며 완연한 하락세를 시현하였다. 달러/원 환율은 EU 정상회의 및 그리스 6차 지원금 뉴스로 월 후반 1100원대를 하회하기도 하였다. 엔/원 환율은 엔화의 완만한 강세흐름에도 원화의 가파른 가치회복으로 인하여 월 초 1570원까지 급등 후, 월말에는 일본 외환당국의 공격적인 개입으로 1400원을 하회하기도 하였다. 유로/원은 원화가 유로존 뉴스에 방향성을 같이 함에 따라 뚜렷한 방향성 없이 1500원대 중반의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출처: 삼성선물 11월 금리환율 전망 2011.10.31

KC 그린홀딩스 재경팀 이강호 (kangho@kc-cottrell.com)

**[환율전망]****CONTENTS**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1

기획특집 2

**매달 환율게시판에 올리는 연간 환율전망을 뉴스레터 추가기사로 게재하겠습니다.**

2011년도 11월 현재부터 앞으로의 환율예측자료를 올려 드립니다. 본 자료는 Nomura Bank International, Standard Chartered, USB,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Barclays 등 에서 전망한 예측치를 기초로 당사가 수주계약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할 때(P.O발급시점) 적용할 환율이며, KC그린홀딩스 재경팀에서 선물환(HEDGE) 계약 시 참고하는 환율입니다.

통화구분	예측기간	TTS(수입시-구매)	TTB(수출시-영업)
USD	2011,4분기	1166.53 /달러	1144.53 /달러
	2012,1분기	1131.40 /달러	1109.40 /달러
	2012,2분기	1106.57 /달러	1084.57 /달러
	2012,3분기	1091.62 /달러	1069.62 /달러
EUR	2011,4분기	1570.09 /유로	1538.09 /유로
	2012,1분기	1535.62 /유로	1503.62 /유로
	2012,2분기	1535.93 /유로	1503.93 /유로
	2012,3분기	1540.59 /유로	1508.59 /유로
JPY	2011,4분기	1553.69 /100엔	1531.69 /100엔
	2012,1분기	1499.56 /100엔	1477.56 /100엔
	2012,2분기	1456.15 /100엔	1434.15 /100엔
	2012,3분기	1418.44 /100엔	1396.44 /100엔

추후 자료가 입수되는 대로 제공지 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11.11.04 최초 매매기준율은 하기와 같습니다.

USD 1,114.00/달러  
 EUR 1,536.54/유로  
 JPY 1,427.11/100엔



## CONTENTS

## KC네트워크 소식

## 고객 동향

## 경제 동향

## 기획특집 1

## 기획특집 2

## [원자재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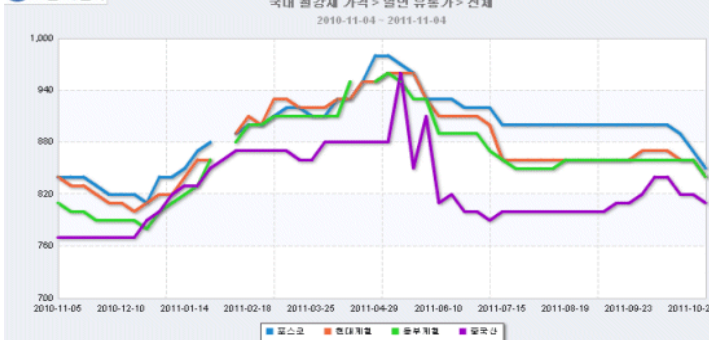
## [열연] [11-1 열연동향] 시중 유통가 하락압력 거세

[스틸데일리 11월05일]

## - 시중 유통가격

시중 유통가격이 속절없이 하락하고 있다. 가격 하락과 함께 거래량이 줄어 들면서 하락압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열연코일 시중 유통가격은 중국 산이 80만원에 턱걸이 했다. 한국산은 최저가 기준 82만원까지 밀린 상태다. 국산의 경우 포스코SSC의 대공세가 가격 하락의 주된 이유로 지목됐다. 특히 남부지역 포스코 열연SSC들이 전남권에 저가 공급한 사실이 수도권까지 소문이 확산되면서 전국 유통가격이 하락 압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SSC 관계자들은 "대량 물량의 경우 톤당 83만원까지 인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운반비를 감안하면 84만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사실과 달리 일반 거래가격이 83만원까지 하락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경쟁적인 가격 인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유통업계의 설명. 이에 따라 실질 거래가격은 82만원까지 밀린 상태다. 포스코SSC발 가격 하락으로 인해 중국산 현대제철산 동부제철산 모두 뒷걸음이다. 일부에서는 포스코 SSC의 가격 공세가 재고 조정과 그 동안 떨어진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기 위한 공세로 분석하기도 한다. 열연SSC간의 가격 경쟁에도 불구하고 출하는 부진한 것으로 보인다. 가격 하락으로 긴급재 아니면 구매를 뒤로 미루는 현상이 확산된 것. 추가 하락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스틸 데일리



## [냉연] [11-1 냉연동향] "감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스틸데일리 11월05일]

## -판매 및 가격동향

냉연사들은 어느 때보다 기운이 없을 것이다. 냉연사들의 내수 할인은 확대일로에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시중 재고는 여전히 역대최고 수준이고, 연말 재고 정리를 위해 저가 판매가 성행하고 있다. 10월 최악의 부진이 11월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3분기보다 4분기 판매시황이 더욱 어렵다는 의견들이 대세다. 판매 부진을 명품화 전략이라는 패를 들고 극복하려는 업체들도 있다.

유니온스틸은 렉스틸 영업팀을 발족시켰고, 동부제철은 프리스티치 명품제품 판촉준비를 하고 있다. 냉연사들은 현재 내년 사업계획을 작성 중에 있는데 대부분 보수적으로 잡을 것으로 보인다.

## 11월 1주 냉연도금재 유통가격

단위: Kg/원, 도착도 기준

품목	규격	포스코제품		냉연3사	
		공장도	판매점	공장도	판매점
CR	1.2mm	1180	1080~1120	1180	1030~1100
PO	4.5mm	1110	940~1050	1110	950~1000
GI	1.2mm	1280	1150~1170	1280	1050~1130
EGI	1.0mm	1290	1150~1170	1290	1050~1130
HGI	2.3mm	1230	1050~1100	1230	1020~1050

## -유통가격 동향

냉연도금재 유통가격은 하락세가 완연하다. 연말 재고처리와 구매대금 지불을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 저가물량이 시장에 쏟아지고 있다. 저가 사이버 경매물량과 수입재, 역수입, 수출물량의 국내 반입 등 천태만상이 벌어지고 있다. 냉연 3사 제품은 현대하이스코 판매점들이 공격적인 영업으로 가장 싸게 팔고 있는 분위기다. PO가 1,000원 정도이며, CR과 GI, EGI 등의 제품은 1,080원 미만에 판매하고 있다. 유니온스틸은 EGI 제품을 특히 싸게 팔고 있는데 타 냉연사들 대비 50원 정도 싼 Kg당 1,100원에 판매하고 있다. 포스코산은 Kg당 1,100원 전후를 보이고 있으며 포스코산 용융아연도금강판(GI)은 1,150~1,170원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이스코와의 경쟁이 심한 산세강판(PO)의 경우 일부 판매점들이 Kg당 940원에도 판매하고 있다. 사이버 이벤트 물량의 경우 이보다 20만원 이상이 싼 것으로 추정된다.

## [STS] STS 유통, "시중가격 추가하락 없이 시장안정화 기대"

## - 포스코 11월 가격동결로 표면적으로 유통가격의 하락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

[스틸데일리 10월28일]

스테인리스 유통업계는 지난 27일 포스코의 11월 스테인리스 가격동결 발표에 다소 안도하는 모습이다. 이는 11월 스테인리스 가격조정을 앞두고 니켈 평균가격 및 국제가격의 하락이라는 인하 요인도 다분히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유통업체들은 최근 들어 특히 유통재고가 상대적으로 늘어나면서 출하가격 인하조정이 될 경우 재고평가손실 등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수요부진과 공급과잉 등으로 시중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가 공식 출하가격을 인하 조정 할 경우 유통가격이 추가적으로 더 끌어내려질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인하보다는 동결을 주장해왔다. 유통업계는 포스코가 11월 스테인리스 출하 가격을 동결함에 따라 표면적으로 유통가격의 하락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1만 8천 달러대에서 한달 여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니켈가격이 1만 9천 달러대로 올라서는 등 다소 회복세를 보이자 일부에서는 시장이 다소 안정화 될 가능성에 대한 약간의 기대감도 비추고 있는 모습이다. 10월 마지막주 스테인리스 유통시장의 304 열연은 kg당 3,500~3,550원 수준, 304 냉연은 kg당 3,500~3,600원대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CONTENTS

## KC네트워크 소식

## 고객 동향

## 경제 동향

## 기획특집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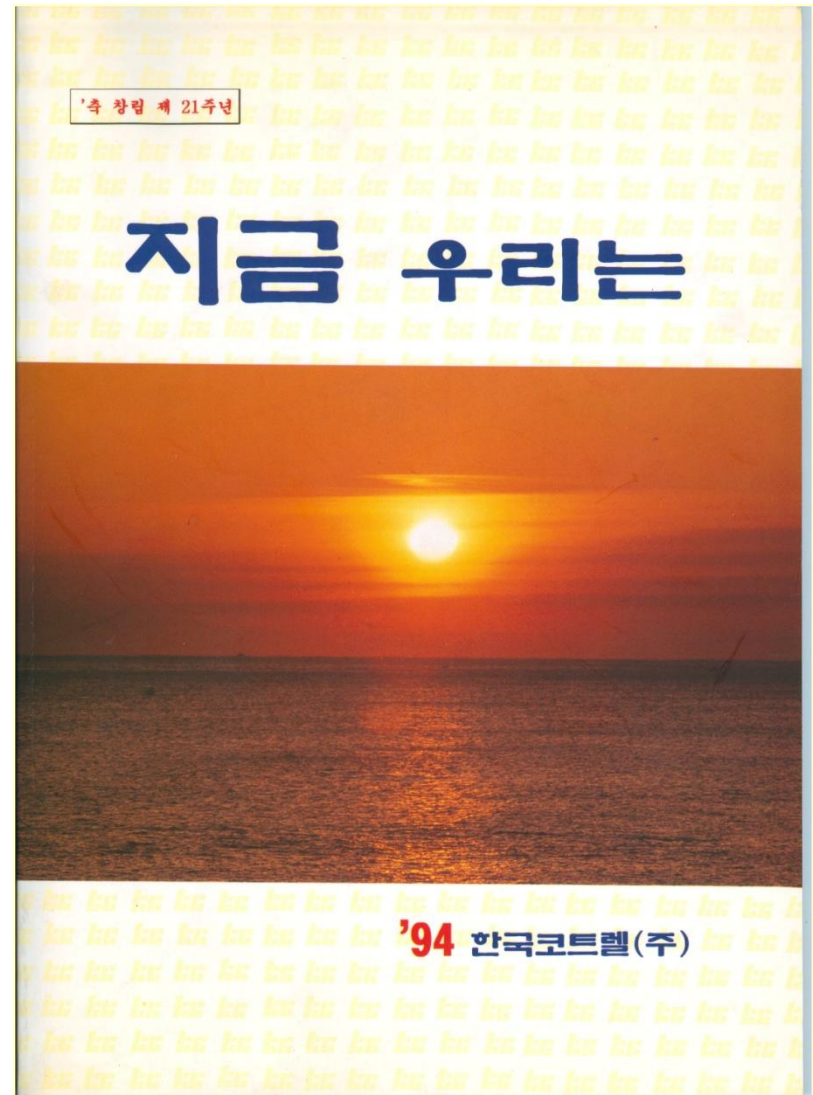
## 기획특집 2

[그 때 그 시절 사보연재-두번째]  
'94' 지금, 우리는

세계는 겉표전으로 몸살을 앓고, 국내에서는 97년 IMF  
외환위기의 문 앞에서 경제적으로 안정을 이룩하던 시절...  
정치계엔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대통령 후보들이 득세하며  
민주화 과정의 종착역에 들어서며, 한국 최초의 소형 실험위  
성인 '우리별1호'가 발사됐고, 김계리엔 신승훈, 김건모  
등 발라드 황제들, 노사연의 '만남', 김수희의 '애  
모', 김정수의 '당신' 등 국민가요들이 흘러나오고, 극  
장가엔 '장군의 아들, 쉬리'가 흥행을 하고 있던  
1990년대!

KC코트렐에서도 사보제작이 활발하였다는 사실..지금부터  
4회에 걸쳐 “그 때 그 시절, KC코트렐 사보”를 연재하  
여 드리겠습니다~ 개봉 박두~!

▶ 1994년 발간된 인쇄물 형식의  
KC코트렐 사보 겉표지



## 한국코트렐 創立21周年을 맞이하면서

회장 이달우



親愛하는 社員 여러분!

우리 한국코트렐은 11월 27일에 創立21周年을 맞이하였습니다. 今年은 우리 會社로서는 몇가지 特記할 만한 좋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첫번째로 우리 會社의 企業公開가 이루어져 盛況裡에 株式市場에 上場되었습니다. 국민들이 보여준 많은 관심은 우리 기업이 이제는 국민의 주목을 받는 기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더우기 “우리 社主”로 사원 여러분 또한 같이 참여하게 된 것은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우리의 오랜 宿願이었던 本社 社屋이 드디어 完成을 눈 앞에 두고 있어 내 집에서 새살림을 차리게 될 날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새 社屋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공지는 더욱 더 커질 것이라는 것은 두말할 必要도 없습니다.

세번째로 지난 여러해 동안 渴望하여온 새로운 工場 建設에 대한

計劃이 實踐에 옮겨질 展望이 밝습니다. 새로운 工場에는 갖가지 最新 生産施設이 具備되어 우리 會社의 生産性和 製品의 品質을 劇期的으로 向上시키는 계기를 마련해줄 것입니다.

이상에서 짚어본 세가지만으로도 21周年을 맞는 우리 會社의 위상이 얼마만큼 向上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會社 전체가 하나가 되어 열심히 일한 결과이며 우리가 더 한층 높은 次元으로 發展하는 굳건한 터전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의 勞苦를 致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外形의으로 화려해진 변화에만 滿足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 社會에서 發生하고 있는 일련의 事故들은 우리를 깊이 반성하게 합니다. 세계의 주목을 받아온 우리나라의 熾盛 經濟成長과 그에 따른 변화에도 불구하고 나타나고 있는 커다란 虛點은 무엇을 意味하겠습니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각자가 맡은 任務는 끝까지 責任지며 懈怠하는 匠人精神의 缺如와 무사안일주의는 전체를 낭패로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더우기 國際環境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걸음을 늦추고 고삐를 늦추면 그만큼 落伍者가 되는 것이 냉엄한 現實인 것입니다. 競爭力을 높이기 위한 生産性和 品質의 向上은 여러분 각자의 責任意識과 匠人情神에 입각한 努力에 달려있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國民의 信賴를 받는 社會의 企業으로 發展하여야 할 責任이 우리 모두의 어깨에 실려있음을 自覺하게 됩니다. 經營者는 經營者답게 分明하고 賢明하게 會社 發展에 대한 비전을 推進해 나가야 할 것이고 社員 모두는 一心同體가 되어 맡겨진 일을 하나의 나사도 풀림이 없이 正確히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코트렐이 和氣에 찬 가운데 건실한 會社로 成長하여 우리나라가 先進福社社會를 이루는데 基礎가 되도록 社員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의 參與와 實踐을 期待합니다.



## 화제의 날

## 상장기업 제 800 호



유난히도 더웠던 지난 여름, 사무실의 에어컨마저 멈춰서버린 열기를 뚫고 우리 회사가 한국증권거래소에 800번째로 주권을 상장, 공개기업이 되었다. 회사로서의 모양을 갖추고 안정성과 성장성을 겸비한 것으로 자타가 인정하는 절차를 통과한 것이다.

우리회사는 형식적, 실질적 공개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1992년 10월 등록법인으로 지정된 이후 공개협의 약정체결, 정관 등 규정정비, 회계전산시스템 구축, 외부감사인 지정 및 수감, 주권액면 분할과 동일주권 발행 및 명의 개서 대행기관

선정, 자본금 증자 및 규모요건 충족, 장외시장 상장, 우리사주조합 결성 등의 사전준비 절차를 완료하였다.

금년초부터 본격적인 분석작업에 들어가 지난 6월 주간사 계획서가 제출된 이후 증권감독원의 특별감리가 7.8월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9월에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과 청약, 10월 5일 주권납입을 거쳐 11월 5일 상장이 완료되었다. 지난 9월 22, 23 양일간에 걸쳐 26만주의 공모주 청약을 받은 결과 69,877명이 2,990만여주를 청약, 1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으며 청약증거금액이 1080억원에

6 지금 우리는

## 화제의 날

달하여 우리회사의 영업성과 전망에 대한 투자자들의 열기가 대단하였다. 이 중 65,590명이 우리회사의 새로운 주주가 되었으며 창립 21년만에 성년 한국코트렐로써 기업혁신의 커다란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기업을 공개함으로써 우리회사는 사회적 공신력제고와 홍보효과, 노사일체감의 조성, 자금조달능력의 증대, 경영합리화, 기타 세제상의 혜택 등 많은 이점을 향유하게 되었다.

반면에 상장기업에는 공개기업으로써 수 많은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우리회사의

영업실적은 수많은 투자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모든 경영행위는 관련기관의 감독을 받게 되어있다. 우리회사의 성장은 곧 우리의 성장이고 사회에 대한 공헌이며, 모든 결과에 대해 그 책임 또한 우리가 져야한다.

우리회사가 오늘의 위치에 서게 된 것은 모든 임직원들의 합심단결과 노력이라는 밑거름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한번 지난 여름의 뜨거운 열기와 같이 우리들의 열정을 모아 세계속의 한국코트렐로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였으면 하는 바람일 뿐이다.



일년의 계획은 봄에,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있다. 봄에 갈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두르지 않으면 그날 할 일을 못한다. 적은 시절은 일년으로 치면 봄이요, 하루로 치면 아침이다. 그러나 봄엔 꽃이 만발하고, 눈과 귀에 유혹이 많다. 눈과 귀가 향락을 좇아 가느냐, 부지런히 땅을 가느냐에 그해의 운명이 결정된다.

- 공 자 -



## 코 트 렐 뉴 스

'94. 1. 5  
공채 5기입사

140:1의 경쟁율을  
뚫고 입사한 공채  
5기는 총 17명이  
다. 이 사진은 신  
입사원교육중 보령  
화력 방문중이며 5  
기가 아닌 이들이  
7명이 끼어있음.  
벌써 익숙해진 모  
습들이 늠름하기까  
지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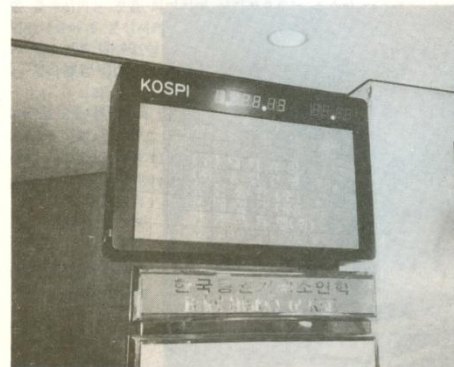
'94. 3. 14  
포항사무소 이전

총 5명의 코트렐인  
이 새 가정을 이루  
어 여러 관계자분  
들을 모시고 이전  
기념식을 가졌다.

## 코 트 렐 뉴 스

'94. 4. 9  
외환은행과의  
체육대회

코트렐인이 하나  
되어 만들어낸 열  
렬한 응원을 업고  
코트렐사우들은 서  
대문의 오래된 이  
웃 외환은행직원과  
의 발야구 및 축구  
경기를 승리로 이  
끌었다.  
화이팅!! 코트렐인



'94. 11. 5  
기업공개

20년동안 환경보호  
라는 목표아래 외  
길을 걸어온 코트  
렐은 이제 국민들  
과 우리들이 기업  
의 주인이 되는 성  
과를 이루었다.  
자랑스러운  
기업공개 제800호

## 코 르 엘 뉴 스

'94. 11. 12  
한마음 수련회

달리고, 뛰고, 넘  
어지고, 부둥켜안  
고, 흔들고, 마시  
고(?) 정신없이 어  
우러지다보니 한마  
음, 한뜻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다.  
맑고 깨끗한 자연  
속에서 호흡하며  
함께한 한마음 수  
련회는 '우리'라는  
단어를 가슴에 새  
겨주었다.



'94. 11. 27  
창립기념일

기업의 주인들이  
참석한 이 자리는  
우리모두가 서로를  
격려하고 참주인이  
되기위한 제도악을  
박차를 다할 것을  
다짐했다. 그동안  
수고하신 장기근속  
자에 대한 포상도  
함께..

## 알아봅시다

## FGC SYSTEM에 대하여

기술부 홍정희

### 1. FGC SYSTEM ( Flue Gas Conditioning System)이란 ?

전기집진기는 어떤 다른 집진 설비보다  
유용한 최신 집진 설비라 할 수 있다. 이  
것의 작동원리는 다음과 같다. 집진기를  
통과하는 분진을 지니고 있는 가스에 음  
이온을 주어 분진이 (-)성질을 띠게 하고  
이것을 정전기력에 의하여 양극에 부착시  
킨 후 떨어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기 집  
진시 분진이 (-)이온을 잘 받아들이 수 있  
는지는 집진기의 효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므로 분진의 전기 저항  
은 아주 중요한 factor가 된다. 전기 저항  
이 전기 집진에 알맞지 않은 경우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그 중  
하나의 방법이 FGC system이다. FGC  
system이란 전기 집진의 성질에 잘 맞지  
않는 분진에 적당한 약품을 가미하여 전  
기 집진이 잘 되도록 하여 주는 장치이다.  
FGC system에 이용되는 agent로서는 중  
기, SO<sub>2</sub>, NH<sub>3</sub>, triethylamine등이 있다. 이  
이외에도 집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중에는 전기 집진기를 확장  
하여 SCA를 늘이는 방법, hot side EP로  
개조하는 방법, bagfilter설치 등이 있다.

### 2. FGC에 사용되는 화학 약품

#### 1) 삼산화황(SO<sub>2</sub>)

SO<sub>2</sub>는 분진의 전기 저항이 높은 경우  
사용하는 약품이다. 전기 저항이 높은 분

진은 전기를 잘 받아 들이지 못하는 성질  
을 지닌다. 뿐만 아니라 전기를 받아들인  
후에도 이것을 잘 떨어내지를 못하게 된.  
전기 집진이 잘 되기 위해서는 전기를 잘  
받아들이기 뿐만 아니라 (+)극에 집진이 된  
후에는 (-)전기를 잘 떨어뜨려 중성이 되  
어야 rapping을 할 때 분진이 잘 떨어져  
분진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전기  
저항이 높은 분진은 (-)이온을 잘 받아들  
이지도 못할 뿐 아니라 집진극에 집진이  
되어도 (-)이온을 잘 떨어내지 못하게 때  
문에 rapping시 떨어지지 않고 집진극 내  
에서 자기들끼리 모여 두꺼운 (-)층을 형  
성하게 된다. 이 결과 형성된 (-)층이 전  
압을 많이 소모하게 되고 나아가 방전극  
이 아닌 집진극에 모인 분진들이 역으로  
corona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것이 BACK  
CORONA현상이다. 이런 부작용을 생산하  
는 분진들을 집진에 알맞게 조절하려면  
(-)이온을 잘 받아들이 수 있게 하는 약품  
을 주입하여야 한다. SO<sub>2</sub>는 연소 가스에  
주입되어 가스속에 있는 H<sub>2</sub>O와 결합하여  
황산 mist를 생산하게 된다. 이것은 분진  
의 위에 COATING이 되어 전보기 저항을  
변화시켜 전기 저항을 낮추게 된다.

#### 2) 암모니아(NH<sub>3</sub>)

암모니아는 SO<sub>2</sub>와 반대로 전기 저항이  
너무 낮은 분진에 적용된다. 전기 저항이  
낮으면 방전극으로부터 발생하는 (-)전하  
는 잘 받아들이나 이것이 집진극에 붙



## 알아봅시다

을 때 너무 전하를 빨리 잃어버려 다시 집진판을 벗어나 연소 가스로 유입된다. 즉 제비산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 이 경우  $\text{NH}_3$ 를 주입하면 이것이 연소가스에 포함되어있는 황산화물과 결합하여  $\text{NH}_4\text{HSO}_4$ ,  $(\text{NH}_4)_2\text{SO}_4$ 등을 생산해 내게 되는데 이것은 space effect를 강화시켜 분진의 응집력을 향상시켜 작은 분진끼리 뭉치게 하여 더 큰 분진을 생산해 내는 물리적 영향을 주게 된다. 같은 집진설비라도 작은 분진보다는 크기가 큰 분진이 집진에 유리하다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 3) 암모니아 화합물

암모니아 화합물의 종류에는  $(\text{NH}_4)_2\text{SO}_4$ ,  $\text{NH}_4\text{HSO}_4$ ,  $\text{NH}_4\text{SO}_3\text{H}$ 등이 있다. 주입 방법은 주로 보일러의 뒤 또는 gas preheater 앞에 수용액의 형태로 주입된다. SOU - THERN RESEARCH INSTITUTE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것은  $\text{SO}_2$ 가 과다하여 전기저항이 낮은 분진에 적합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gas preheater나 gas distribution device등에 scale이 많이 쌓이게 되므로 적어도 90일 정도에 한번씩 물 청소를 해주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 4) TRIETHYLAMINE

이 물질은 세계적으로 한국에 사용되어 본 경험 이외에는 없으므로 특별히 어떤 작용에 의하여 집진을 도와주고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암모니아와 비슷한 효과를 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모든 경우에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석탄에만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 물질은 높은 온도에서 diethylamine을 만들고 이것이 방출되어 암을 이루는 물질로 작용한다.  $\text{SO}_2$ 보다 conditioning 효과가 좋지 않으므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

## 3. 결어

앞에서 FGC system에 사용되는 약품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 보았다. FGC system은 전기집진을 높일 수 있는 방법중에 가장 경제적이면서도 양호하게 작동되었을 경우 아주 효율적으로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 다른 방법에 비해 부가의 면적도 상당히 줄일 수 있으므로 아주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외에도 FGC system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 1) 여러번의 경험이 있으므로 실패율이 낮다.
- 2) 설치 중 boiler를 정지시킬 필요가 없다.
- 3) 어떤 종류의 석탄에도 효과가 있다.
- 4) 설치비와 유지비가 낮다.
- 5) 한국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으므로 미리 시찰이 가능하다.
- 6) FGC system은 완전히 package로서 시험까지 완료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연결되자마자 작동이 가능하다.
- 7) FGC system은 거의 완전 자동이므로 조작이 쉽다.
- 8) layout상 유리하다.



아무런 적은 것도 이를 만들지 않으면 깨달지 못한다. 노력과 베행, 이것 없이는 인생을 밟을 수 없다.

- 명 자 -

## 휴가여행 - 그해 여름은 지나치게 따뜻했네

## 지리산 답사기

기술2팀 전형일

7월의 마지막 토요일! 하계 휴가로 이어지는 주말 첫날이었다. 그날은 산중에 일컬어지는 지리산으로 가는 날이었다. 오래간만의 긴 나들이였기에 조금의 가슴떨림이 없지는 않았지만, 폐장하지 않은 날씨에 앞으로 펼쳐질 불운(?)의 파노라마를 예견하는 듯 했다. 큰가방을 둘러메고 등산화로 무장한 8명의 코트렐인들은 서울역에 모여 서로를 격려하며 기차에 올랐다.

모두가 당찬 각오에 차 있었다. 지리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후레쉬 불빛아래 저녁을 해 먹고 어둠속을 헤쳐 야영장을 찾아 첫밤을 보냈다. 신혼의 첫밤처럼 포근하지는 않았지만, 대지의 꿈틀거림이 느껴지는 듯 했다.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되는 둘째날 아침에는 쾌청한 날씨는 아니었다. 장마철에 접어들어 있었기에 비가 내리기라도 하면 어려운 산행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였지만, 다들 씩씩하게 행군을 시작했다. 전국에 가뭄이 오랫동안 계속되던 관계로 땀사골을 지나 연하천산장에 도착했을 때는 물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져 있었다. 태풍이 몰려온다는 소식도 있어 만만찮은 산행이 계속되고 있었다. 몇명은 줄을 서고, 서둘러 야영을 위한 자리로 찾아 돌아다녔지만, 휴가철이었기 때문에 그 곳 일대는 텐트의 물결로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어렵게 산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텐트를 쳤

고, 3시간을 기다려 물을 받아 8시에나 밥을 해 먹을 수 있었다. 힘든 하루만으로도 지친 우리에게 더더욱 큰 시련이 닥쳤다. 모두가 지쳐 잠든 새벽에 드디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어두워서 배수구도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비가 스며드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찌푸린 얼굴로 남자기실(?)도 제대로 못했다고 우리들이랑 놀지도 않았다고 땀 돌아서는 여자들의 얼굴이 아른거려 더이상 잘 수 없었다. 옷통을 벗어 저치고 야산을 땀겨 들고 나와 야밤에 무덤과는 기분으로 도랑을 왔다. 그렇게 하룻밤을 지냈다. 아침에는 다행히도 비가 많이 수그러들었다. 둘째날의 행군은 제비보다는 시작한 산행을 빨리 마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오후를 지났을 때에는 비마저 꺾어졌다. 조씨가 무거운 짐을 많이 짊어진 관계로 간격을 조절하면서 뒤에서 따라왔고 자연히 두께로 나눠졌다. 세석산장에서 만나기로 하고 뒤따라 가던 우리는 길마저 잘못들어 2시간 정도 우회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시간은 흘러가고 먹을 건 떨어지고 비는 내리고 몸은 지쳐대로 지쳐 한걸음 한걸음이 힘에 겨웠다. 빨리 서둘러야 했기에 조씨만 남겨놓고 3명은 길을 계속했다. 6시쯤 세석산장에 당도했다. 곧 앞조를 만났다. 바람까지 심하게 불어 다들 더이상 산에서 하루밤을 더 지내고 싶지 않은 모양이었다. 초코파이가 입에서 사르르 녹았고, 군대있을때나 먹

## 휴가기행



어보았던 생라면으로 배를 채운 뒤 우리들은 야간산행을 결정했다. 후레쉬 전전지를 갈아넣고 물통을 하나 들고 나는 거꾸로 조씨를 찾아나섰고, 나머지는 산을 내려갔다. 거꾸로 길을 재촉했고 그리멀지 않아 조씨를 안개속에서 찾아냈다. 이제 길을 재촉해 앞선 사람들을 만나야 했다. 30분정도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두르면 만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잠깐의 휴식을 마치고 따라나서기 시작했다. 바람도 무척 차가웠다. 길을 재촉했지만, 산속의 밤을 너무 쉽게 찾아왔다.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서 걸음을 느려질 수밖에 없었다. 후레쉬도 하나밖에 없어 차례로 내려가야 했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비가 갑자기 많이 온 관계로 계곡 물도 많이 흘러내렸고, 그래서 계곡을 가로질러 난 길은 찾아내기가 무척 어려웠다. 길도 미끄러웠고, 어둠은 짙어질대로 짙어져 앞사람들이 걱정스러웠다.

몸은 지칠대로 지쳤지만 앞선 사람들이 걱정스러워 할 수가 없었다. 10시쯤 새벽 산장에서 하행을 시작하자 4시간쯤 지나 중간 쯤 말을 발견했으나 그곳에서 길을 잃어 찾을 수 없었다. 화살표 방향으론 길이 없었다. 점점 빛을 잃어가는 후레쉬를 들고 고심하던 중 멀리 위에서 불빛이 내려오고 있음을 발견했다. 순간 우리일행이길 얼마나 바랬는지 모른다. 불빛은 점점 가까워졌고, 말소리도 들리기 시작했다. 여자목소리가 들려왔고, 순간 나는 우리 일행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도 나의 불빛을 발견했고, 서로가 애타게 만나길 바랐던 연인들처럼 우리는 자기들도 모르게 기쁨의 환호성을 질러댔다. 서로를 부둥켜 안고 서로의 무사함을 물었다. 그 재회의 순간을 같이한 이들은 모두 나의 기억속에 뿌리깊게 박혀있을 것이다. 이젠 무사하게 내려가기만 하면 된다. 전전지를 새로 갈

## 휴가기행 - 그해 여름은 지나치게 따뜻했네

아끼고, 마지막 하행을 시작했다. 내가 앞장섰고, 조씨가 중간을 최씨가 뒤를 책임졌다. 후레쉬가 5개였고, 인원은 8명이었기에 걸음은 빠르지 못했다. 그러나 같이 있었기에 그것만으로도 힘이 나는 모양이었다. 노래도 불렀고, 서로가 예전에 느낄 수 없었던 무엇인가를 느꼈다. 새벽 1시가 지났을 무렵 무척이나 길었던 하행을 마치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마을에 당도했고, 보이는 벤치에 모두들 몸을 던지듯 안도에 한숨을 내쉬었다. 이젠 끝이다. 우리나라의 제일이라고 하는 지리산도, 태풍의 악조건도, 배고픔의 아픔도, 깊은 어둠 우리를 꺾을 수는 없었다.

바닷가에서 편안히 쉴 수도 있었지만, 시원한 계곡물에서 놀 수도 있었지만, 산을 좋아하는 우리는 산을 택했고, 끝내는 정복했다. 그 재회의 순간을 같이한 모두에게 감사한다.

자!!.. 이제 는 가자 에베레스트로!



꿈을 이루기 위한  
10가지 충고



1.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굴복하지 마라.
2. 어려운 일에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하라.
3. 자신의 가능성을 부인하지 마라.
4. 실패할 위험이 있다고 해도 포기하지 마라.
5. 훌륭한 생각을 거부하지 마라.
6. 남도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라는 생각을 하지 마라.
7. 건설적인 생각을 환경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견줄지 마라.
8. 자신이 불안하다고 해서 강대세력을 포기하지 마라.
9. 당장 개인적인 유익이 없더라도 먹고 나가라.
10. 하나의 목표가 이루어졌다고 중언하지 마라. (더 좋은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전진하라.)



## 우리 사는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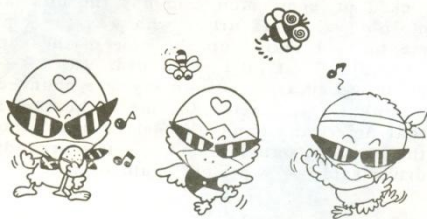
## 2001년을 바라보며

포항사무소 하두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기를  
 원세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오늘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7년전 어느날 어느 유명한 점장이 나의 운세는 36세부터 길운이 따른다고 했었다. 운 한해는 나를 비롯해서 주위에 그리 좋은 일만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고 최악이었던 것도 아니다. 미래를 점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가 보다.

1994년 11월 우리 코트렐은 몇년간의 노력 끝에 드디어 기업을 공개하게 되었고 우리들은 코트렐의 주인이 되었다. 우리는 유명한 점장이라도 아니고 7년 뒤를 예언할 수도 없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난 일들을 돌아보며 반성하는 일이다. 이제 새로운 출발이다. 코트렐의 주인으로 새집에 들어간다. 7년이 지난뒤 오늘을 돌이켜 보면서 나처럼 막연히 점장의 말을 믿고 기대했던 것을 한탄하고 후회해야 되겠는가.. 기업 또한 사람과 같이 법인이라고 하질 않는가 우리들은 이제 성년이 되어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랑, 신부라 하자. 기업공개를 통해 악혼식을 대신하였고 사옥에 입주하면서 결혼에 골인하여 한가정을 이룬다고 가정하여 보자. 이 가정이 단란한 가정,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가족들이 서로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7년 뒤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 볼때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는 코트렐 가족이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노력합시다.



## 우리 사는 이야기



## 미국에서의 일화..

업무팀 이상민

I went to the USA last year and studied at the English Institute of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in Seattle, Washington. Living in English was not easy, of course, and even understanding English was so difficult, especially during the first few weeks.

When I arrived in the US, I stayed in my sister's house which was quite near to Seattle until the dormitory opened. While in my sister's for the first few days, I didn't have to speak English. One day, however, I had to go and check out the location of the English school as the beginning day of the class was coming. It was the very day I had the unforgettable and embarrassing experience in my life because of my clumsy English.

While I was going to the downtown of Seattle from my sister's by bus, I didn't have any problem. I paid the bus fare when getting on the bus as easily as in Korea and I just got off without speaking a single word. But I was in big trouble when I was trying to get on the bus to go back after making sure the location of the school. When I picked up some money to pay the bus fare just like that morning, the bus driver who was the black guy, stopped me to by blocking up the hole of the cash box and said something. But all I could hear was "----- get off" which made me embarrassed and my face changed to a Halloween pumpkin". This reminded me of hearing some people say that Americans don't like Asians and I thought "It must be the racial discrimination !" A few seconds later, the bus driver said "----- get off" again to me.

1) Halloween Pumpkin : Halloween day 에 가면용으로 사용되는 크고 붉은 호박, 얼굴이 빨갛게 되었을때의 표현.

## 우리 사는 이야기

I felt it was time to do or say something to protect myself, but I only said "O.K" and got out of the bus helplessly.

A couple of days later, I was able to realize what the bus driver tried to say to me actually. That was "You pay money when you get off."

Though my English ability is better, I can say, than that time, English is still difficult for me like when I only could speak "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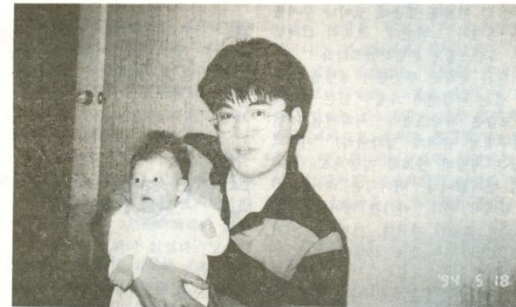
제가 미국에서 영어를 처음 쓰기 시작할때 겪었던 당혹스러웠던 일들 가운데서 하나를 영어로 써보았습니다. 각 영어 단어 하나하나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여러가지 뉘앙스로 나타나듯이 이 글을 읽는 분들의 느낌에 따라서 번역의 감도 틀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서툰 영작문이지만 여러분의 '국문학적' 감각에 따라 재미있는 글이 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우리 사는 이야기

## 아빠가 쓰는 육아일기

기획관리팀 신성용



충분히 계획되어지고 합의된 일이었다.

94.3.19(토) 흐림

늦은 4시경 간호원의 두팔에 안겨서 내 앞에 모습을 나타낸 내 딸을 주인공으로 나의 육아일기는 시작된다.

출생후 약 2주일간은 수용소(중환자실)에서 나이팅게일(?)의 간호를 받는 사치스러운 생활로 초기 육아는 해결되었다. 경제적 부담은 있었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한 딸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기 위해 아내와 나는 격론을 벌였으나, 나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세상을 항상 밝고 끝개,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가라는 뜻으로 "昭貞"이라고 지어주었다.

육아초기 소정이의 하루일과는 상념(잠)에 빠져있는 것이다. 따라서 육아의 대상

인 소정이의 자는 모습만을 지켜보았던 것이 내 육아일기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는데, 잠들어있는 소정이의 얼굴을 일일이 서술하자면 온세상의 미사여구를 동원하여도 표현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한다.

아침에 출근할때 자고 있는 소정이를 바라보고 볼때도 뽀뽀를 해주고 나면 아내는 문앞에서 다음은 자기차레라고 준비하고 있다. 퇴근후에도 소정이는 대부분 잠들어 있다. 그래서 나의 육아는 오히려 소정이를 대상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소정이 엄마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하루동안 일어난 소정이와의 대화내용(?), 소정이의 변화되어 가는 모습, 오늘은 "엄마"라고 불렀다는 아내의 이야





## 우리 사는 이야기

기를 들어주며 수고에 대한 보상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육아의 임무이자 의무이었다. 그래도 아내는 별달리 불만을 가지지 않고 잘해 주었으니 가끔은 돌발적 상황을 일으키곤 한다. 소정이가 밤 늦도록 자지않고 보채는대로 전혀 돌봐주지 않고, 오늘은 당신이 달래서 재워보라고 하며 침실로 들어가버리면, 좀처럼 잠들지 않는 소정이를 관적으로한 온갖 Package쇼를 곁들인 말판말이 아가씨 길들이기는 고요한 아파트단지를 뒤흔드는 메아리를 만들어내고, 아래층 오렌지 할머니의 황의 전화도 곁들여진 예비군 훈련으로 밤을 지새우곤 하기 때문에 나는 좀처럼 아내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나 자신의 Know-how를 쌓는대로 게을리하지 않는다. 그런 덕분에 이제 소정이는 불룩나온 아씨의 배에 동생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지 배위에 올라와 기내고 누워 잠드는

것을 좋아하며, 얼굴을 비비대며 코를 풀어도 깨끗한 공간이 많이 남는 나의 등에 올라타는 것을 좋아하며, 이제의 목마를 태워 달래기라도 하는듯 아빠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야호”라고 외쳐댄다. (실제로는 무슨말인지 못알아듣고 있음.) 습관적으로 떠드는 소정이의 외침을 아직도 나는 알아듣지 못하지만 아내는 알아듣는 것처럼 대화하고 있다. 좀더 시간이 지나면 나도 소정이와 신세대의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리라 마음먹으며 내가 성장하면서 느꼈던 “아버지”의 얼굴과 지금시대의 “아빠”의 얼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된다.

편집실의 원고마감 독촉에 쫓겨 밤늦게까지 원고를 쓰고 있는 이시간에도 소정이는 자지않고 원고내용에 주목하면서 알지 못할 소리를 외쳐댄다.

“아빠, 사랑해요! 고마워요!” 라고 하는 듯이...



## 그 아버지에 그 아들

아들 삼형제와 아버지가 달력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다.

막내 : 원허수목 긴토익

둘째 : 이전 바보, 길이 아니라 굼이야. 내가 읽으게 작터 원허수목 굼사익

첫째 : 아니, 이전 멍청이. 그건 사가 아니라 토야. 자, 바.

원허수목 굼토익

이걸 보고 있던 아버지가 답답한지 말했다.

아버지 : 니들 학문 식적이 왜 그 모양이나? 애, 멍내야.

준 가르쳐 줘네니 어서 가서 형편 준 갖고 댔라

## 나도 시인 너도 작가

## 천구백구십사년

영일부 박승원

어제 도망고 꿈을 꾸었다.

스무살 빈 주머니를 자고 가도  
비닐전막 밖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카바이드 불빛에  
한번의 가랑비에도 씻겨 나갈듯 걸려있는  
등근달, 이름도 모르는 도망고 아버지의 글씨  
그리고 우리들이 만들어 내는 세상

사고들 저도 군대에서는 말아가지  
사람구실 못해 이따위 장사하냐고  
막내아들 곱마자에 얼굴에 안내미는  
고수아버지, 언젠가 한번 비친 얼굴에 어색하게  
걸려있던 빵덕모자, 그 머느리가 울음속에 구워내는  
곱창어 향내에 물드는 우리들의 세상

도망고야

그 아버지가 꾸는 꿈을 기억하느냐  
네게 재떨이를 집어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소리나게 놓았다고 다시 시킨 아버지 얼굴에서  
빈 뱃속에서 지르는 담배연기 사이로 풀어지던  
과속보다 더 슬픈한 한숨을 보았느냐

나도 시인 너도 작가

그 어머니가 꾸민 곁을 기억하느냐  
 뒤통스만 보이던 계수물통의 네 어머니가  
 뒤돌아서 들고오는 아침상에  
 어제 팔다 남은 대강짜개가 곱고  
 먹은 길숙으로, 상을 받긴 어색한 긴 손가락에 배어나오던  
 수줍음을 기억하느냐

어제꿈,

수많은 잡념에 시달려 서둘러 잠들지 못하고,

아침 눈을 떠 세상이 간결을 간결음의 나를 쫓아와  
 들어오는 것에 깜짝 놀라 거울을 손으로 닦고  
 눈을 들여다 본 기억도 아득하다.  
 찢발어진 전장 밖으로 빛나는 세상.

도망고야

서른살의 주머니는 포물선속의 달귀농은  
 곧 떨어진 안구처럼 말라 비뚤어져있고  
 깃들이를 잡은 자가운은, 눈 놓을 곳도 없어  
 엷은 서리 덮인 강아구를 내려다보면  
 머기진 강바닥을 헤메고있는 겨울 황새,  
 그리고.....

행진 자유로에 황혼저녁 떠오르는 햇살 곳으로  
 네 얼굴.....

한국코트렐 51

동아리 발자취

## 한국코트렐 축구회 2년을 돌아보며...

생산팀 이정희

## 한국코트렐 축구회!

아직은 알려지지 않은 우리들만의 작은 모임이지만 따뜻한 정과 회원들간의 협조와 사랑으로, 2년이란 시간을 함께 걸음마 해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기쁨과 어려움을 함께 하면서 화합이란 이름으로 축구회 모임에 적극 참여해 주신 회원여러분에게 이 글을 통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의 전합니다.

저희 축구회 2년차의 활동상황으로는 매주 토요일 정기모임을 실시한 것부터 7월에 본사와의 단합을 위한 축구시합을 개최하였으며 회원들의 단합된 마음을 갖기 위해 단체 운동복을 구입하였고, 가을에 제2회 축구회 야유회를 계양산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업무량의 과다로 인하여 많은 정기모임을 갖지 못하였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다가오는 1995년의 차기 축구회에는 유능한 회장 및 총무가 선출될 것이므로(나의 예상?..) 차기 임원의 계획하에 다양한 업적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어봅니다.

제1회, 제2회 축구회 총무직을 마치면서 갖는 작은 바램이 있다면 매주 운동장을 빌어 쓰는 하정국민학교의 어려운 학생을 추천받아 축구회의 이름으로 작지만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차기 회장에게 이 임무(?)를 넘깁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코트렐 축구회의 영원한 발전을 위하여 우리 모두 전배를..(망년회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며)



한국코트렐 53



## 동아리 발자취

## 따뜻한 격려와 사랑으로...

## 업무팀 안선희

햇살을 맞으며 또 한해가 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 어느 누구나 이때쯤에는 지나간 일년을 되돌아 보며 가슴 벅찬 충만감보다는 허전함과 아쉬움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나 화려했던 것보다는 해놓은 것이 적고, 이루어 놓은 것에 대한 감사함 보다는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이 큰가 봅니다. 그러면서도 새로운 해를 맞을 때마다 또다시 많은 새로운 것들을 계획하고 열심히 살아보리라 다짐에 다짐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살아 가는 모습인 듯도 하구요. 요즘은 우리 코트렐사우들은 신문의 주식란을 보면서 그리고 신사옥 입주를 눈앞에 두고 너나

없이 회사의 외형적인 성장을 실감하며 가슴뿌듯함과 앞날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에 설레이는 듯 해 보입니다.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가는 회사에 발맞추어 소담회도 여사우간의 친목도모라는 차원에서 벗어나 좀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발돋움을 하며 지내온 일년이었습니다.

소담회는 '88년 심여명 안밖의 본사 여사원들의 친목모임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본사뿐만 아니라 공장, 연구소, 현장사무소 등 코트렐의 전 여사원을 대상으로 하며 '94년에는 정회원 25명, 준회원 2명으로 사내동호인모임으로 등록도 하여 소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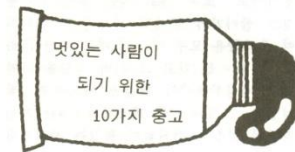
## 동아리 발자취

회의 외형적 모습을 갖추는 한편 그동안의 친목도모 성격에서 벗어나 한국코트렐의 여사원회로서 대내외적인 역할정립과 새로운 여사원상 수립에 부심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의 일환이었던 소담회의 지난 일년을 간단히 소개한다면, 첫째 회사생활 속에서 자칫 메말라지기 쉬운 정서를 위해 매달 2-3전씩의 도서를 구입하여 처음 읽어본 책 못되었던 소담회 도서방이 이제는 백여권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여사우 뿐만 아니라 코트렐 모든 사우들에게 대출을 해드리니 많이 읽어주세요. 그리고 뮤지컬관람, 영화관람 등을 통해 문화생활의 다양화를 시도해보기도 했습니다. 둘째 축구와 발야구로 치워진 대외 친선경기 때에는 일과후의 연습게임과 응원전, 그리고 필통이 등을 통해 일체감도 키워보고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보았다는 자부심도 가져보았습니다. 셋째 대성리 수련회를 통해 우리회사가 기대하는 여사원의 역할과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들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가지며 새로운 여사원상을 찾아보고자 하기도 했습니다. 넷째 연말연시를 맞아 지방이나 해외현장에서 수고하는 사우들을 위해 우리 여사우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말만 앞세운 채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던 대외봉사활동을 시작이 반이라는 마음으로 많은 준비는 못했지만 작게나마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일을 준비하며 우리 회사에 작은 사랑이라도 어려운 이웃과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예쁜 여자들이 참 많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상이 두서없이 간단히 적어본 소담회의 지난 일년으로 정말 해놓은 것은 너무

작고 해야할 숙제만 산더미 처럼 남겨놓은 채 한해를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지금 모습은 아직 너무 어설피지만, 코트렐 사우들의 따뜻한 격려와 사랑이 있다면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진 모습으로 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음 가득 사랑을 안고 저희를 지켜봐 주세요.



1.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긍정적인 사람"
2. "제가 하겠습니다." "나는 능동적인 사람"
3. "무엇이든지 도덕드리겠습니다." "나는 적극적인 사람"
4. "기꺼이 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헌신적인 사람"
5. "잘못된 것은 즉시 고지겠습니다." "나는 겸허한 사람"
6. "참 좋은 말씀입니다." "나는 수동적인 사람"
7. "이렇게 하면 어떻까요." "나는 협조적인 사람"
8. "대단히 고맙습니다." "나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9. "도움 없습니까?" "라고 물음수 있는 여유있는 사람"
10. "이 순간 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일을 찾아 할 줄 아는 사람

## 동아리 발자취

## 산과 더불어 살고 싶은 우리

기술3팀 최현규

우리들의 인생을 보다 즐겁고, 윤택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이 좋아하고, 또는 하고 싶은 일에 취미를 갖고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모두 다 나름대로 자신이 하고픈 취미를 갖고 그 취미 생활을 하면서 일상생활에서의 탈출을 시도하고, 쌓여있던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나아가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뜻있는 사회생활을 하게 된다.

나는 그 많은 취미 중에서 산에 오르는 것을 좋아한다. 물론 전문적인 산악인도, 협한 암벽을 타는 암벽 등산가도 아니지만 그저 산을 오르다 보면 마음이 편해지

고, 신선한 공기 및 살아있는 깨끗한 물을 마시며, 여러가지 어려운 고비를 이겨내며, 산의 정상에 도달하였을때 앞에 펼쳐진 황홀한 풍경, 나 자신을 극복하였다는 희열감이 좋아서 산을 찾게 된다. 또한 산을 오름에 좋은 점을 몇가지 나열하고자 한다.

하나, 기분전환에 좋다는 점이다.

산을 잘 오르든 못 오르든 가벼운 옷차림으로 산을 오르다 보면 땀과 함께 스트레스는 날아가 버리고, 여러 고개를 지나서 정상에 도착하여 바라다 보는 세상은 내가 살아 있음에 감사하고, 살아야 하는 이유를 느끼게 한다. 그리고 산에 내려와



## 동아리 발자취

마시는 한 잔의 동동주와 파전, 도토리묵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임을 느끼게 한다.

둘, 건강유지에 좋다는 것이다.

도시의 오염된 공기와 물을 마시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나무가 있고, 새가 있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폐속에 그동안 쌓여 있던 도시의 찌꺼기를 다 날려 보내고, 웅달샘의 시원한 맑은 물은 역시 나의 몸에 새로운 활력소가 된다. 또한 그 동안 책상에 앉아서 둔해져 있던 몸에 여러 어려운 고개를 넘고, 가파른 언덕을 걸어 가면서 운동을 보충해 준다.

셋, 정신수양에 좋다는 점이다.

땀 뻘뻘 흘리며 산을 오르므로, 다시 무거운 몸을 이끌고 산을 내려 오는 것이 무슨 정신수양에 도움이 되느냐는 사람도 있지만 산 속을 걸으면서 자신을 뒤돌아보는 여유가 있고, 힘든 길을 걸어가면서 자신을 이겨야 하는 강인한 기쁨은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힘든 일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준다. 이 얼마나 훌륭한 정신수양의 길인가?

넷, 경제적으로 매우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취미이다.

가벼운 청바지에 하얀 티를 입고 옆에 물통하나 차고 한손에는 김밥, 다른 한손에는 나무젓가락이 이것이 산오르는 자의 시작이다. 물론 전문적인 등산이나, 산속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하는 경우 또는 겨울 등반시는 그에 따라서 필요한 많은 물건이 준비되어야 하지만 하루 산책같은 등산에는 그저 산에 오르려는 용기만 있으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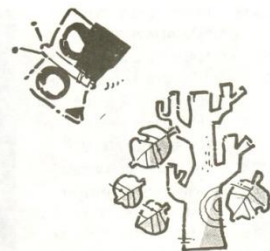
다섯, 좋은 친구를 사귄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산에서 만나는 사람은 모두 다 친구이다. 남녀노소 모두 만나면 서로 웃으며 어느 때는 서로 돕고, 어느 때는 한장의 소주를 기울이며, 우정이 싹트게 된다. 약한 사람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인내가 없어서 산을 오르려 하지 않는다. 코트렐 총각, 처녀 여러분 현재 애인이 없으면 산을 좋아하고 산에 오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십시오. 그러면 아름다운 만남이 될 것입니다. (애석하게 본인 최현규는 애인이 존재함)

이에 우리 회사에도 산사모(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가 있음을 알리고 누구나 한국코트렐에 제직하는 한은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음을 아울러 알리며 나아가서 우리 모든 사원이 백두산 천지에 아나베베레스트 정상에 연쾌가는 한국코트렐의 깃발을 꽂는 그 날을 기원하면서 이 글을 마칩니다.

\* 역대 산사모가 등반한 산들

- 북한산, 도봉산, 관악산, 소요산, 청계산, 대둔산, 지리산





## 나도 한 마디



강명환 : 아들아! (A/S팀) 내년에는 출장 양가도 되재?  
고은봉 : 할말 없는 無 "X" 똥이 해보자"  
김기욱 : [ - 에도 복구하고 - 한다] 나는 마음자세를 갖는다면 어떠한 일이든지 아름답게 보이겠군  
김광호 : 넓고 진실된 마음으로 모든 것에 입학 수 있기를  
김법근 : 20대의 끝에서서.....  
김병주 : 가는 1994년!

오는 21세기!  
아! 겪어지는 나의 20대여..  
김동식 : 자유로운 생활을 추구하며 어디든가 떠나고 싶은 신정!(아형성 부임이)  
김상록 : '94년은 한국방문의 해'  
'95년은 경수기판매의 해'  
김수미 : 코트렉 여러분께 이 말씀이 함께하시길..  
나 자신이 나약하고 힘에 겨워 더이상 통기가 나지 않아 초라해 보일때에 나에게 이 말씀이 힘이 되어주었고, 방패가 되어주었다 (성경구경 마가복음 9:23절) '할수 있거든이 무슨일이냐 믿는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 건은 못에 건은 모자, 건은 오토바이를 타고 액션영화의 여주인공이 되어왔으면.....

김연재 : 어어 벌써 새해아  
김종태 : 1995년 신년을 맞이하여 희망찬 미래가 펼쳐질 것을 상상하면 즐겁고 활기찬 새 삶이 내앞에 다가올 것 같다. 전기집진기를 구입하여 설치한다는 희망과 야망을 갖고 1994년을 마감하고 싶다.  
김태진 : The secret of success in constancy to purpose  
김태희 : 우리 부서원이 누구누구요?  
김학석 : 노장은 말이 없이 편뿐이다.  
김혜진 : 신년연하장 - 코트렉 모든



## 나도 한 마디



이에게 새해에는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남영미 : 경식의 계적이거나 이 가을에 진정 사랑하는 사람(들)과 긴 여행을 떠나보고 싶다. 풍요로운 가을속으로... 함께 떠날 사람 댁에 붙어!!  
노근환 :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무님의 부족한 부분을 제가 도울테니겠습니다. (사식은 저의 가슴에서 이식을 위해 그것이 무척무척 자라고 있거든요)

사내적으로는 경조급 따복은 받는데.. 여직원들이여!! 이년자 어때요 ???  
문충권 : 애기도 갖고, 회사일도 바쁘고, 집도 사고..  
아!!! 정말 바쁜 94년도였다.  
면태환 : 강관 바로 옆이 제관인 중 약있건만 강관은 메스킨을 타고 세계를 누비는데 나는 캐피탈을 타고 다닐까 세계를 건너들지 못하는 것 같은데 명년쯤엔 차를 메스킨으로 바꿔 타야겠는걸..  
박강희 : 한국코트렉의 주식 10만원대는 바로 눈앞에 있다  
박인봉 : 집에서 wife를 밟고 먹고 싶다네!  
배경수 : 내년에는 꼭 하고 말거야, 빠사 !!! (???)  
서동영 : 세상은 좋해도 내년도 그 이후도 돈을 잘고 함께 겪어가는 길, 좋해 그 무더위에서도 우리 웃고 함께 했듯이, 내년도도 그렇게 가가하..  
서정철 : 뭐냐? 서정철 정준이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좀더 열심히 살아야지  
신성용 : 두말가죽은 늙어가고

(一妻一女) 대충같은 붙어 나는데(사주공계, 주택자금공계) 내 처사같은 줄어들 줄 모르네

신은득 : 미안성이란 삶의 작품 한하를 감상하고 평할 기록에서..

- 그대, 지금부터가 시작이야. 모든 일은 잘 될거야. 추억과 느낌이 풍부한 해가 되게...



## 나도 한 마디



신현식 : 원고주세요, 원고!!!  
 찔찔, 쿵쿵우우우... 쿵!!!  
 신희철 : Sun and STAR and .....?  
 Don't walk, Run.  
 알선희 : 하후하후 천선을 다해 살  
 아가고 싶다. 탕을 쌀아가는  
 느낌으로...  
 안세홍 : Don't worry, Be happy!  
 양현명 : 딸과 노력과 투지를 아끼  
 지 않는 천선에서 최고를 추  
 구하는 의욕있는 대 코트레  
 인이 됩시다.

연현주 : 다음년도부터는 열심히 뛰어야겠다.

오창근 : 내차에 누가 터보엔진과 낱개 좀 달여주시오 !!!

공장을 공부원으로 옮기는 것은 어떨런지??

멋지게 삼시다

우종호 : 처음에 아기(우리 연경이)를 보았을 때는 핏지 서먹하고 머쓱하더니 지금에  
 탄선(2달 밖에 안되였지만) 애기가 전전 에버보이는게 나도 이젠 애아빠가 되  
 어가나 보다.

악! 주식이 31,300원 이란다. (11/7)

원종용 : 내변이 걱정되어...

진짜 신사록에서는 전줄 굵연이어 ?

유홍렬 : 시현문제당안 천님당안 천님당안2

베니스의 상인 ----- (?) -----> 고추장사

유진형 : 2억만머리(=)PEN 가지고

원 어떻게 쓰라는 거야? 나

지금 비벼...-대말 총강종에-

윤경식 : 내 젊음에 끌려 아량이

일치하는 그날 코트레라 함

께 하기후...

윤성진 : 내변 어름을 통가을 같이?

이걸곤 : 남이라는 공자에 전하나만

지우면 넓이 된다는데...

이경영 : 삐다래! 장가나 가자, 너두

가고 나두 가자.

이계영 : 오늘보다는 나은 내일



## 나도 한 마디



이무형 : <K/C상장의 여파탄 기대>  
 스포츠신문에서 경제신문으  
 로 거래선 변경  
 한달의 가처분소득에서  
 7,500원이 감소  
 내년도 임금협상에서 월  
 7,500원 인상은 K/C직원의  
 딱지(?) 노선  
 이명경 : 시간이 주어진다면 녀업  
 떠어친 길을 그 누구가(?)  
 같이 걸어보고 싶다.  
 내가 뭘 이리저? 가를 타

나? 아무래도 난 秋女인가봐!!!

이상현 : 신사록 한강식은 깨끗하고 ddong 작 나오는 분위기면 좋겠다. ddong이나 딱  
 딱 써서 배나 들어가게 하계..

이상종 : 流行無考, 流念無常

이상학 : 새쌍둥이를 맡들어서 농구단이나 창성해마지. 쌍둥이론 농구단 (내침은 동니  
 도!)

이성진 : '94년 코트레의 신규사업팀으로서 부담없이 일할 수 있어 좋았다.

이제 '95년 우리 신규사업팀 크게 일으켜, 박봉의 코트레 직원들. 일안해도 먹  
 고 살 수 있게끔 해 주려나 이거 어깨가 너무 무거워진다.

이윤숙 : 확신했다! 걱정했습니다! 내변을 기대해 주세요??!!

이전석 : 성령 따들은 룬발에 있어도 계삼쌍들은 식수가 룬남되지 않는 설계식 이나  
 우!

이종우 : 나 장가가유!

이종철 : 내변엔 총강 러금만 보내  
 유?

이주원 : 김은밤, 감 못 들고 이러  
 저리 뒤적이며 한순라 함께  
 담배를 입에 문다. 한해가  
 지나가니 나이도 한살, 사회  
 경력도 1년, 들어나는 한순  
 이지만 처자식 생각하며 내  
 변에는 더욱더 현이름!  
 (남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하운 : Businessman으로 전세계를





## 나도 한 마디



즐겁다고 뛰어다니는 나의 모습.... 정병 끊이전가?  
 이한남 : 가다 딱나  
 임은경 : 천년이 한번 튀겨서 번거로운 나무의 자태가 더욱 이쁘다워지는 12월이고 시작의 달 95년 1월이 뭐 좋은 이 시간에서 모두 행복하기를...  
 임은영 : 배고파 웃고 있는 이에게 따뜻한 국밥을 나누워 줄 수 있는 마음, 주워서 펴고 있는 이에게 모닥불이 되어주려는

마음 더없이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되려요!

인재규 :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천식환 참 생략.....

임혜진 : 식막하게만 여기면 나의 타향살이 한해, 돌이켜보면 기본악이 일상생활에 반쯤은 차지한 것 같다. 밝은 모습으로 지내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바쁘게 살고 싶었다. 자연스럽게 잊혀져 버린 누군가에게 오늘은 자그마한 엽서 한장을 띄워 보고 싶다고 말해야겠다.

조연형 : 집에 쌓여 있는 편지 없네. 잘다 드시죠?

조윤호 : 아! 좋습다... 잘가가가지...

정신희 : 하루하루 소중한 나의 젊은 날들...

뜻깊었던 '94년을 보내고, 벅찬 가슴으로 '95년을 맞이한다. 돼지의 해를 맞아 돼지띠 꿈을 펼쳐보리라.

경우선 : 시간은 흘러간다. 풍가지에서 꿈을 흠어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서로 알아볼 수 없도록 자라게 하면서 누구에게나 공평히... 살아있다는 것은 존재 그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리라. 그래서 오늘도 나는 살아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나 스스로의 몸짓을 계속한다.

정우혜 : 나에게 멎있는 날개가 있진 뭐든든지 갈수 있실진대.....

(비행기타 종동만 피하면 만사 OK!)

전현진 : 1년동안 무위도식한 기본이다. 내년부터는 예전의 영광을 회복해야지!

차 환 : 희망찬 미래를 향해 찬찬 전진

최기수 : 풍태야! 나는 겨운 했대어.. 너는 아니냐?

최상호 : 부장님 내년엔 출장이 조금 줄겠군요?

최원기 : "동네사람들! 나 잘가있어요".. 사랑하는 이가 이제는 내 아내로 항상 곁에 있으니.. 아내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그리고 꿈은 현실을 위하여 어찌 역심을 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거야

## 나도 한 마디

최은진 : 실적을 쌓아서 편안함과 자유스러움으로 항상 머물러 있는 내자녀를 떠나서 온 세상을 여행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지금은 방안 구석에 앉아 방콕에 방콕 러데스의 편안함을 누리며 이전 노래를 불러본다 "내사랑 어디쯤에 있니? 어찌 구겨져..."

최인숙 : 무슨일이든 처음 시작할때는 대단한 결심과 희망을 품게된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멀어져 나중에는 아예 그 빛을 잃을 수도 있다. 새해에는 일을 시작할 때에 갖는 강한 희망을 가슴에 단단히 담고(잃어지지 않게)가정에서나 회사에서나 열심히 생활 해야겠다.

최현규 : 가자!! 백두산 천지로..

한국 코트렐의 기상을 드높이 휘날려...

허대근 : 세계속의 나!+너!+우리! = KOREA COTTRELL CO.,LTD "1994.11.5 상강기업"

허문현 : 오늘이 있기에 내일이 있고 내일이 있기에 후일을 기약할 수 있리로

허순범 : 내년엔 사무실에 빈자리가 없겠군요?

홍승연 : 숙이나 퍼 먹읍시다

홍승표 : 긴치 생각 날짜마다 찍어 놓은 사진 귀국하면 보여줄게. <실은000아>

- 대양에서 -

홍정희 : 94년은 내가 KC에 입사한 해이다.

처음이라 본색을 드러내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나의 진면목을 꼭 보여줘야지  
 형경은 : 유나 언머가 됐시유!



코트렐 게시판

## 코트렐 게시판

반갑습니다. 코트렐식구로 인사드려요

홍정희	이미경	이성진	정우선	임은영
김태진	전형일	이주현	조운호	유광수
발성호	신현식	부현숙	김수미	장대중
이동희	정신희	손동성	김법근	연현주
김현준	김기욱	신순복	조민형	이주원

❁ 정식발령 : 박태호    장경현    임재규



축하합니다. 어께가 무거워지셨습니다.



<b>이사승진</b>	<b>과장승진</b>	<b>대리승진</b>	<b>주임승진</b>
신상목	이재열	안세홍	임영덕 박찬일
김용국	고은봉	김용범	박일봉 함정식
오인석	최영식	정순호	문종권
	최인범		전은교 정희진
<b>차장승진</b>	이종영	김상목	박장희
최영희	고덕명	이정희	이택주
임창호	조철기	최현규	신성룡
오창근		마 준	노우섭
유홍열			

## \* 회 사 연 혁 \*

1973. 11. 27 : 한국코트렐공업주식회사 설립  
본 사 :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22-2

1977. 10. 30 : 본사를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15-5로 이전

1978. 8. 14 : 공해방지 시설업등록 - 보건사회부 제6호

1979. 9. 1 : 인천공장 준공  
공 장 : 인천시 서구 가좌동 481-1

1979. 9. 20 : 공장등록 제3-50-4-660호, 인천시

1982. 8. 4 : 인천공장 증축

1983. 2. 24 : 한국의환은행에서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

1990. 11. 5 : 한국코트렐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1990. 11. : 대만지사 설립

1991. 9. : 상공부지원 공업기반기술 [한국형 전기집진기]  
: 연구업제로 선정

1992. 8. : 기업부설 기술연구소 설립

1992. 10. : 기업등록(증권관리위원회)

1992. 10. : 상공부지원 공업기반기술[쓰레기 소각로]  
가스처리장치 연구업제로 선정

1992. 11. : 무역의 날 5백만불 수출의 탑 수상

1993. 6. 3 : 제 1회 환경대상(환경과학기술부문)수상  
- 환경처 & 조선일보 공동제정

1993. 9. 10 : 주권 장외시장에 등록

1993. 11. 27 : 창립20주년

1994. 10. 5 : 자본금 43억원으로 증자  
(기업공개)

1994. 11. 5 : 주권상장

1994. 11. 27 : 창립21주년

1995. : 사옥입주  
본 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60-1

KOREA COTTRELL CO., LTD.



“Clean Air”


....That's what we have been doing !!!



하늘은 파랗게, 강산은 푸르게...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일들—  
한국코트렐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산업용 집진설비 만들기  
외길 21년,  
아름다운 금수강산, 푸른 하늘을 지키고 보존하고자  
몸둘바른 한국코트렐은 93년 제 1회 환경대상 환경과학  
기술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기술신진기업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또한 집진설비의 국산화와 고품질화를 통해 지난 92년  
1억불 수출고를 달성하기도 한 한국코트렐—  
앞으로도 첨단 환경과학기술연마와 연구개발에 더욱  
전력하여 지구환경보존에도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한국코트렐 (주)

많은 사랑과 관심 감사합니다.

다음달에는 사보 마지막 장,  
96' 년 그때 그 시절이 찾아옵니다.

그때까지~~ 안녕하~~~~



## CONTENTS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1

기획특집 2

[안성유리공업] - 안 성 산 악 회  
억새를 뜯다

주말을 하루 남긴 금요일.. 퇴근 후 마눌에게 던진 한마디. “내일 김밥 싸 주어야 한다. 억새보러 간다”

마눌이 하는 말 “김밥집에서 사 가지고 가면 되겠네”

나의 폭탄 터지는 소리 “내가 할아비야?” 이 한마디에 마눌은 기죽고 우리는 늦은 시각에 김밥 재료 사러 나갔다.

먹을 땐 간단한데.. 무슨 김밥 만드는 재료에 이렇게 정성이 들어가는지..

밤12시까지 재료 준비하고 다음 날 일어나니 마눌은 벌써 김밥을 만들고 있었다. 내가 뭐 할 일이 있나.. 그저 만든 김밥 먹는 일밖에..

당초 정선의 민동산에 가기로 했었는데 몇몇이 사정이 생겨 부득이 가까운 홍성 근처의 오서산으로 변경했다고 한다.

배낭에 여러이 먹을 수 있는 김밥을 가득 넣고 과일 패도 넣고.. 찢 게란도 한 사람씩 먹을 양을 넣고.. 아, 참! 술 찾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독한 술도 하나 챙겼다. 그렇게 만든 만삭의 배낭을 메고 태워주기로 한 큰길로 나섰고 어디쯤 오고 있냐고 물으니 이제 곧 출발한다고..

에구! 지금 출발하면 30분 정도 더 걸릴 텐데, 길거리에서 멍하고 있긴 그렇고 해서 다시 아파트로 들어와 중앙 현관에서 문을 여는 순간 다 와 간다고.. 뭐 일이야.. 하면서 달리기를.. 이 사람들이 노인을 애 먹이네 속으로 투정하면서 차에 올라 여사원의 남자 친구도 소개 받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서산 주차장에 도착.



1



2

1. 등산로 코스, 2. 등산회 회장 조영원 제조과장

## CONTENTS

## KC네트워크 소식

## 고객 동향

## 경제 동향

## 기획특집 1

## 기획특집 2

산에 오르기 전 몇 년 전에 이 산에 올랐던 기억을 해본다. 그 때는 등산 전에 술을 넘 많이 마셔 죽을 고생을 한 곳.. 몇 년 전 고동사고로 숨진 친한 사오하고 과음하고 힘들 게 올라갔었는데 먼저 올라 온 사람들이 김밥 다 먹고..우리 찌꺼기만 먹었던 기억도.. 갑자기 먼저 간 그 사오 이근성대리가 그림다. 만삭의 배낭을 짊어지고 오르는데 배낭 이 부담스러워서 우선 술을 꺼내 다른 주당에게 건넸다. 그리고는 또 계란을 꺼내 배낭 을 가볍게 했다.

오서산은 750미터 그리 높지 않은 산인데 오름 새가 참으로 가파르다. 민둥산은 중간부 터 역세의 장판인데 이곳은 산 정상까지는 소나무와 다른 나무들로 채워져 있다. 오르 는 도중 만난 젊은 미시 등산객들과 즐거운 농도 더해가며 정상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 해 갔다. 오르다 보니 큰 나무들이 줄어들고 바위가 웅기종기 모여 있다. 연인으로 보이는 남녀가 서로 사진을 찍어주고 깔깔 웃는다.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던가..

아래를 내려다보니 우리가 돌아 온 저수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다. 정상에 오르니 사람 들이 많다. 언제 올라왔는지 서로의 자태를 사진에 담고..정상은 깊은 가을을 만들고 있 었다. 하얗게 날리는 역세의 깃털은 어느 새 사라지고 남은 총각의 타 버린 얼굴 마냥 서 있다. 정상에 올라 사오들과 사진 찰칵.. 역세에 둘러 싸여 사오들과의 얼굴 자랑 을 마치고 우리는 가지고 온 먹을 거리를 풀었다. 근데, 먹을 보따리가 다 비슷하다. 마 치 종합선물 같은.. 그 곳에는 주먹밥과 다른 먹을 거리들을 넣은 종합선물세트..산행을 주관한 산악회장과 총무가 준비한 도시락이었다. 나만 도시락을, 도시락 준비해 오라고 게시판에 올려놓고서는 그냥 오라고 했었나 보다. 좀더 부담을 안 주기 위한 주최측의 배려이었나 보다. 근데 나에게도 그런 말을 해 주지 않아 우리 마눌 고생하게 한거 지? . 아무튼, 인기리에 내 도시락이 비워지고 독한 흥주도 한잔씩 하고..

## 오서산 역세

허안 모습은

바람에 빼앗기고도

허리 골게 펴고 날 기다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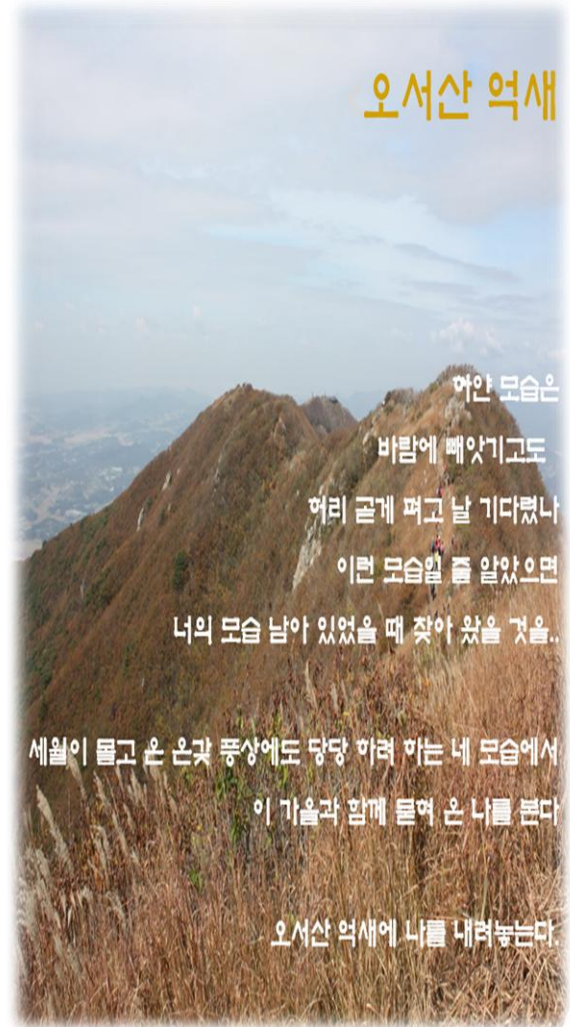
이런 모습일 줄 알았으면

너의 모습 남아 있었을 때 찾아 왔을 것을..

세월이 물고 온 온갖 풍상에도 당당 하려 하는 네 모습에서

이 가을과 함께 뜰려 온 나를 본다

오서산 역세에 나를 내려놓는다.



## CONTENTS

## KC네트워크 소식

## 고객 동향

## 경제 동향

## 기획특집 1

## 기획특집 2

나 만 빼고, 요즘 이명에 이어 결막염까지.. 지저분하게 살고 있으니 술을 먹으면 바보. 정상에서 바라 본 서해 바다의 끝자락이 가을건이가 끝난 들녘과 맞닿은 곳까지 침투해 있다.

가을의 서정이 스스로를 이기지 못하고 가슴 밖으로 스며 나온다. 그래서 가을은 우리 모두를 시인으로, 화가로 만들어주는 가 보다. 참 쉽조잉..예술가 되는 것이..

오서산 정상 표지석을 경계로 하고 여당과 야당으로 나누어 모두가 김치! 좋은 얼굴이다. 못 생긴 얼굴이 배우가 되는 그 시각에 우리 마눌 생각이 났다. 잠 설쳐가며 싸 준 김밥 잘 먹고 잘 놀고 있는데 방긋석에서 심심해하고 있을 평생지기인 내 마눌이.. 구경 잘 하고 있는 나에게 눈 약 넣었냐고 전화해주는 내 마눌을... 그런 마눌에게 피눈물 나게 한 적은 없었는지 반성도 해 본다.

이 가을 같이 여행하지 못한 미안함도 잠시, 급경사를 따라 내려가야 했다.올라 갈 때는 힘 있는 척하며 앞장을 섰는데 내려갈 때는 무릎 근처가 약간 당겨왔다.

작년 대청봉에서 내려 올 때 아파 고생했던 생각으로 걱정을 했는데 그리 높지 않은 산이라서 다행히 잘 내려왔다. 바닷가 근처에 왔으니 회 먹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근처 한우가 유명한 광시에 간다고.. 비싼데...깡..그래도 사우들과의 심통\*을 위해 맛있는 한우 한번쯤은..

어제 회사 폐업하고 왔다는 동업계에 근무하는 전직 사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회사는 내가 30년 동안 근무해 온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곳이란 생각을 다시 해본다. 다음 산행 때는 좀 더 많은 사우들이 동행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마친다.

심통\*이란

마음이 통함을 뜻함

안성유리공업㈜ 이석구 상무  
(sklee@asglass.co.kr)

